



# Nagra PMA

## 감탄하라, 섬세한 음악적 뉘앙스를

나그라는 프로용 및 민생용 제품을 생산하는 스위스의 대표 하이엔드 브랜드이다. 특히 도시락만한 크기의 프리앰프 및 진공관 파워 앰프, 세계 최고의 정밀도로 탄생시킨 테이프 리코더 등 나그라의 이미지는 정밀 가공의 극한과 컴팩트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이번 특집에 참가한 PMA 역시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향이 특징인 솔리드스테이트 모노블록 파워 앰프. 동사 솔리드스테이트 방식으로는 PSA의 형편인 최상급 기종이다. PMA의 의미는 'Pyramid Monoblock Amplifier'의 줄임말로써 형태의 특징을 모델명으로 사용하였으며, 80부하 시 200W의 출력을 보장하는 대출력 파워 앰프이다. 몸체의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무게도 한 조당 10kg 정도이다. 외모로만 봤을 때 도저히 대출력 앰프로 판단하기 힘들다. 알고 보니 스위칭 파워를 채택한 제품으로 그 컴팩트한 제품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상판의 피라미드 형상 커버를 벗기고 내부를 들여다보니 역시 스위스 제품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일체의 틈이 없는 레이아웃은 마치 1mm의 오차도 없을 것 같은 정교함 그 자체이다. 최적의 방열을 위해 50도의 경사로 마무리된 방열판부터, 바나나 플러그에도 대응하는 WBT 스피커 단자, 진동을 철저히 베이스로부터 분리한 부품 배열 등 어디 한군데 흠잡을 만한 구석 없는 완벽성을 자랑한다.

출력 소자는 엑시콘의 MOSFET을 N채널과 P채널

의 컴플리멘터리 방식으로 채택하여 AB급 출력 동작을 하게 된다. 스위칭 전원부는 나그라의 특이한 PFC(Power Factor Collector) 방식으로 고주파 성분을 대폭 억제하고 입력 교류 전원의 안정과 동시에 직류 출력의 안정화를 최대한 고려한 설계 방식인데, 특히 전압 변동에 강하다. 전원 라인에서 공급되는 노이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솔레이션 트랜스를 배치하는 등 작은 몸체이지만 충실하게 최고의 성능을 위한 메이커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스위칭 전원 방식은 유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수의 메이커에서 채택되고 있지만, 전통의 명가 나그라의 스위칭 제품은 어떨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본격적인 시청에 임하였다.

솔루션 프리와 카시아노 매칭은 일단 음의 깔끔함이 돋보일 만큼 산뜻한 경향의 울림이다. 특히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은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의 장점을 그대로 엿볼 수 있으며, 상당히 기품 있고 품위 있는 고급스러운 음색 또한 인상적이었다. 마칼 지휘의 말러 교향곡의 경우 특이한 성격을 한 가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데 바로 음장 공간의 안길이가 상당히 깊게 펼쳐진다는 것. 깊은 음장 공간은 당연히 개별 악기들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전 대역에 걸친 분리감은 발군으로 짜임새 있는 오케스트라의 향연이 펼쳐진다. 저역의 특성은 깊이감을 강조하여 낮게 떨어지는 특성보다는 빠르고 깔끔한 경향이다. 이는 전반적인 음악 재생에 전혀 무리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밸런스감을 보여 준다.

수입원 : 캄피아 (02)717-4274

· 가격 1,600만원 클래스 : AB · 실효 출력 200W(8Ω) · 대역 10Hz~70kHz±0, -3dB  
S/N비 104dB THD+N, 0.09% 이하 입력 임피던스 100k 이상  
입력단 RCA, XLR 크기(WHD) 38x30x38cm 무게 10kg



편성이 작은 곡에서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음들이 펼쳐진

다. 아큐톤 유닛들의 경우 미스 매칭 시 약간은 메마르고 건조한 경향의 음이 재생되기도 하는데, 이 제품의 풍요롭고 색채감이 풍부한 재생은 분명 진공관 방식인 동사의 VPA 제품과도 일맥상통하는 경향이다. 필자는 기술 집약보다는 메이커의 음향 철학을 더욱 우선시 한다. 이는 비록 출력 소자는 전혀 달라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음향의 일관성을 느낄 수 있어 나그라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여성 보컬 곡의 미묘한 입술 떨림이나, 현악기의 미세한 표현력을 포착하는 능력 역시 PMA의 하이엔드적 기질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며, 시청실 전반에 흐르는 탁월한 공기감은 스피커의 존재감을 잊게 만들어 주는 이상적인 매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질과의 매칭에서는 특유의 선도감과 미음에 살집을 붙이는 듯한 인상인데, 솔루선과의 조합이 음의 두께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애호가 분들에게는 좀더 좋은 매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반적으로 어떤 프리앰프와의 매칭에서도 음의 경향이 아기자기한 여성적 섬세함을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음악을 억압하여 재현하는 느낌보다는 연주하는 절절적인 요소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줄탄 스피커의 경우 구동의 용이함 측면에서 카시아노보다 조금 더 버거운 상대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PMA의 구동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탁월한 대역 밸런스를 보여 주었다. 약간 어두운 색조의 이

스피커를 밝고 생기 넘치게 재생시키는 PMA의 능력은 분명 음색적인 조합 자체가 탁월한 매칭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역시 진공관을 연상하는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말리교향곡의 경우 카시아노와 마찬가지로 음장의 깊이감을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로 적어도 동일

가격 대 앰프로는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만큼 탁월한 무대 재현 능력을 보여준다. 총주 부분에서 보여주는 음의 박력은 대음량 시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만 이는 시청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이브 재즈 녹음의 현장감 재현 측면에서 PMA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특히 어둠이 짙게 깔린 재즈바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 놓은 듯한 오디오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아련하고 길게 번져가는 피아노 음의 잔향감은 넓은 무대에서의 실연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현악기의 질감 표현 역시 적절한 색채감을 수반하여 최상의 결과를 보여준다.

스위스 앰프의 공통되는 특징들 중 한 가지로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메이커 마다 갖고 있는 특유의 음색이다. 일일이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FM 어쿠스틱스의 음색과 골드문트의 음색은 분명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유의 색감이 있다. 필자는 오디오 제품에서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인 특징에서 보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하며, 적어도 하이엔드 브랜드라면 메이커 고유의 개성과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그라 역시 이런 의미에서 분명 자신만의 고유한 음색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진공관 방식인 VPA와 PMA 사이에 어딘지 모르게 공통적인 음의 특징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분명 그들만의 혈통이 갖고 있는 음향 철학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PMA, 이번 시청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의 음색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특히 음의 순도와 스피드감, 고급스러운 음색적인 측면에서는 최고급 매머드급 앰프와도 겨룰 수 있는 실력을 보여 주었다. 물론 초대형 스피커와의 매칭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하이엔드 스피커들과는 최상의 매칭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품으로 평가하고 싶다. **A**

